

# 2018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북도 음성군  
- 대소지역아동센터



2018. 8

---

김\*연

---

2018 여름 이화봉사단은 내가 얼마나 봉사를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그동안 기획 봉사 활동들을 했을 때는 봉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과 실천 활동 모두가 행복했었다. 그러나 기획단 총괄을 맡고 나서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고, 동아리도 같이 관리 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은 봉사를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생각 했었다. 심지어 갈수록 지치기만 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봉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쳐가는 마음이 커지던 중 봉사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보자마자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과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 봉사를 다녀오고 보고서를 쓰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 아이들이 늘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기도한다.

---

안\*현

---

처음에는 센터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아이들과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걱정들은 다 사라졌다. 아이들은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반겨주었고 우리가 하는 활동에 항상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업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 4박 5일 동안 아이들과 너무 많은 정이 들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이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센터 친구들의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여름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준 대소지역 아동센터 친구들과 이화 봉사단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갑자기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게 되어 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가서 실수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을 잘 못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과 하나하나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도 부족한 우리지만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주어서 너무 고맙웠다. 작은 활동이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임해주는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동안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전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 봉사를 오기 전에는 5일이라는 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다보니 금방 지나갔고 끝나고 나니 너무 짧았던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5일 동안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좋아해주고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도 고맙다.

종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봐왔고, 함께 놀았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5일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함께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으나, 우리가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우리에게 천천히 마음 문을 열어주었다. 프로그램을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 주었고 흥미 있게 참여해 주어서 뿌듯했다. 하루 하루 지나갈수록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봉사하는 5일이 긴 시간일 줄 알았지만 아이들과 그 지역에 적응하고 나니 금방 지나갔고, 마지막 날은 정말 아쉬웠다. 아직도 아이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의 이름이 다 기억나고, 보고 싶다. 이화봉사단에 너무 늦게 참여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봉사를 하면서 이화 봉사단을 더 빨리 알았으면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

정\*현

---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봉사는 처음 경험해 보았기에 아쉬운 점도 있었고 배운 점도 많았다. 초반에는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가 부족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점심 후 쉬는 시간 등에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방법들을 터득하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조금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봉사에서 학업적인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참여하며 자존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센터의 아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박\*연

---

아이들이 너무 활기차서 저도 가서 많은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이 활발한 탓에 조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선생님들과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센터에서 아이들 밥이나 간식 등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이 다 보였고 우리 이화봉사단을 많이 배려해주셔서 감사했다. 5일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아직 아이들이랑 많은 대화도 못 나눠서 많이 아쉬웠다. 아이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텐데 많이 들어주고 싶었다. 이번 이화봉사단 기획팀에서 테마로 정한 주제도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다. 자존감이 다소 낮은 아이들도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이화봉사단 참여였지만 하면 할수록 새롭고 다음에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